

# 'U+골프'로 스윙 연습을... 누적시청 4200만분

연내 이용자 100만 돌파 기대

LG유플러스는 골프 미디어 플랫폼인 U+골프 애플리케이션(앱)의 유행을 위해 누적 시청 시간이 4200만분을 돌파했다고 10일 밝혔다. 가장 많이 이용한 중계 기능은 '인기선수 독점중계', 가장 시청건수가 높았던 주분형 비디오(VOD) 콘텐츠는 U+골프 오리지널 예능 레슨인 '처음부터 폴스윙'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부터 10월 말까지 10개월간 U+골프 앱의 누적 이용자 수는 10월 말 기준 9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6월부터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며 연내 100만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U+골프 이용자를 분석한 결과, 40대·50대가 60.1%로 가장 많이 앱을 사용하고, 30대(17.8%), 60대 이상(10.1%)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10대 시청자가 전체 시청자의 9.1%를 차지, 20대 시청자(2.9%)보다 골퍼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 모델이 VOD 콘텐츠 중 가장 인기가 많았던 U+골프 오리지널 예능 레슨인 '처음부터 폴스윙'을 시청하고 있다. /LG유플러스

U+골프는 올 한해 총 26회의 대회를 중계했다. 특히 가장 많은 시청자가 유입된 경기는 지난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된 '제20회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이다. 우승한 고진영 선수는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를 차지하며 골퍼 팬들로부터 꾸준한 관

심을 받고 있다.

U+골프는 ▲인기선수 독점중계 ▲5G 스윙밀착영상 등 KPGA 실시간 중계를 비롯해 ▲선수별 스윙 ▲지난 경기 다시보기 ▲단계별 레슨 등 다양한 VOD 콘텐츠를 제공한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 스마일페이 '2019 대한민국 상품대상' 대상

이베이코리아 간편결제 서비스

온라인 유통기업 이베이코리아의 간편결제 '스마일페이'가 지난 9일 사단법인 한국상품학회가 주관하는 '2019 대한민국 상품대상'에서 서비스의 차별성과 높은 영향력을 인정 받아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상품학회가 스마일페이를 대상으로 선정한 배경에는 ▲직관적이고 간편한 사용 편의성 ▲이베이코리아 산하 G마켓, 옥

션, G9는 물론 다양한 온오프라인 가맹점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확장성 ▲이베이코리아의 상업자 표시 신용카드(PLCC) '스마일카드', 멤버십제 '스마일클럽' 등과 연계한 고객 경험의 차별성 등을 꼽았다.

시상자 및 발표자로 나선 이베이코리아 나영호 전략사업본부장은 "앞으로도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전략적 제휴를 통해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 美서 '글로벌 리서치 심포지엄'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은 7일(현지시간)부터 8일까지 미국 실리콘밸리 삼성전자 미주법인에서 '글로벌 리서치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심포지엄은 수리과학, 물리, 화학, 생명과학 등 기초과학 분야



카이스트 신의철 교수가 강연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

의 세계적인 석학들을 초청해 최근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미래 트렌드를 조망하는 행사다. 2015년부터 이어져왔다.

올해에는 생명과학 분야 면역치료를 주제로 글로벌 석학 20여명과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 지원을 받는 연구책임자 3명이 참석해 연구 교류를 진행했다.

시작은 미국면역학회 회장을 지낸 미네소타대학교 마크 켄킨스 교수 연구 발표였다. 면역 세포(CD4+T)에 대한 기초 연구를 통해 백신의 효과를 높이거나 자가면역질환을 방지하는 연구 내용을 발표했다. 국내에서는 카이스트 신의철 교수, 포스텍 이윤태 교수, 서울대학교 정연석 교수 등이 발표를 맡았다.

카이스트 신의철 교수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에서 면역 세포가 어떻게 활성화되어 인체 조직을 공격하고 염증을 유발하는지 연구를 발표했다. 포스텍 이윤태 교수는 자가면역질환을 유도하는 특정 면역세포(Tfh)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분자수준에서 연구했다. 서울대 정연석 교수는 자가면역질환 환자의 동맥경화증 발병 빈도가 증가하는데 착안해, 지방 대사에 관여하는 특정 단백질이 어떻게 면역 세포를 통한 항체 생성을 조절하는지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포스텍 이윤태 교수는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집중적인 토론을 통해 큰 신뢰 관계를 쌓을 수 있었다. 특히 해외 석학의 연구협력 제안도 있어 향후 공동연구 추진 등을 구체화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오늘의 운세 11월 11일 (음 10월 15일) http://www.saju4000.com

<p>36년생: 아직은 꿈을 가져도 좋다. 48년생: 인생의 휴식이 없어 무척 고단. 60년생: 기회는 타이밍이 중요하니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 72년생: 믿은 만큼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 84년생: 건강이 우선이니 먹는 것에 유의하고 운동하라.</p>	<p>42년생: 가족여행을 계획해 보자. 54년생: 후배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 66년생: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다가가라. 78년생: 너무 늦기 전에 돌아오는 것이 현명하다. 90년생: 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비추듯 모든 것이 순조롭다.</p>
<p>37년생: 날씨도 좋으니 여행을 떠나보자. 49년생: 머리보다 가슴으로 느껴야 하는 날. 61년생: 약속이 중복될 수 있으니 실수 없이 반드시 메모. 73년생: 남들이 부러워하는 선물이 들어온다. 85년생: 어여쁜 이성의 유혹이 있는 날.</p>	<p>43년생: 경치는 좋으나 인심이 박하다. 55년생: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마라. 67년생: 가지 못한 길에 미련이 많이 남는다. 79년생: 변화무쌍한 날이니 운전엔 주의. 91년생: 무더위가 갔다고 그들의 덕을 잊으면 안 된다.</p>
<p>38년생: 눈에서 멀어지니 마음도 떠난다. 50년생: 가는 사람도 한번은 잡아야 한다. 62년생: 뜻하지 않은 행운에 마음이 기쁘다. 74년생: 사귀기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법이니 의견통일이 우선. 86년생: 공들인 공력이 기화로 온다.</p>	<p>44년생: 피판색과 숫자 13이 행운을 준다. 56년생: 제2의 인생을 열려면 어려워도 꾸준히 노력. 68년생: 자녀에게 하는 칭찬은 보약이다. 80년생: 신용이 우선 중요하다. 92년생: 상대의 작은 실수를 덮어주면 우연히 보답을 받는다.</p>
<p>39년생: 불어오는 바람이 근심을 가져간다. 51년생: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둬도 된다. 63년생: 성공이 눈앞에 있어도 모르고 지나간다. 75년생: 심드렁한 날이니 기분전환이 필요하다. 87년생: 밀 빠진 독에 물 붓기하고 있는 형국.</p>	<p>45년생: 입으로라도 웃으면 복이 온다. 57년생: 갈팡질팡 중시 잡기가 힘들다. 69년생: 불만은 가족에게도 나타내지 마라. 81년생: 계속될 삶이니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93년생: 노력을 안 하니 부러워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p>
<p>40년생: 나이 들어도 외모에 신경 써라. 52년생: 조연도 사람 봐가며 따라야 한다. 64년생: 인생은 새옹지마이니 너무 실망하지 마라. 76년생: 불만이 있어도 내색을 말아야 편하다. 88년생: 기회는 스스로 잡는 것이니 노력을 해라.</p>	<p>46년생: 실패는 성공을 위한 좋은 밑거름. 58년생: 깊은 밤은 새벽을 위한 준비. 70년생: 농친 고기가 크게 보이는 법이다. 82년생: 몸도 마음도 피곤한 날이니 휴식으로 재충전하자. 94년생: 물 흐르는 대로 가는 것이 순리이다.</p>
<p>41년생: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는 심정으로 투자에 주의. 53년생: 헛된 희망에 비싼 값을 치른다. 65년생: 자식이 뜻대로 되지 않아 걱정. 77년생: 미련은 빨리 버리는 게 상책. 89년생: 농친 고기를 안타까워 말고 내 것을 소중히.</p>	<p>47년생: 날개 없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기분. 59년생: 눈치 보지 말고 뜻대로 결정. 71년생: 희망을 버리는 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된다. 83년생: 머뭇거리지 말고 확실한 의사 표현을 해라. 95년생: 고임이 많으니 자기 주관을 뚜렷하게.</p>

## 김상희의 四季 마음이 문제다

선종의 육조(六祖)인 혜능스님은 여러 일화가 있다. 어떤 두 사람이 절의 일주문 옆에 달린 바람에 흔들리는 깃발을 보고 있었다. 깃발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한 사람은 바람이, 다른 한 사람은 깃발이 흔들리는 것이라고 했다. 마침 그때 혜능스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는 "스님, 저는 바람이 움직인다고 하고 이 사람은 깃발이 움직인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하고 물었다. 이에 "그건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단지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는 불교가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대표적인 서도 함축된 의미가 담겨 있는 일화다. 살아간다고 하는 존재로서의 실상을 얘기할 때 마음의 작용을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고 보는 화엄사상의 요체가 있다. 세상에 대한 이해를 불교적 관점에서 보자면 세상을 인식하는 매개체는 안이비설신의(眼耳鼻舌身意)이다.

즉 우리가 육체(눈 귀 코 혀 몸 뜻의 여섯 곳)를 통하여 보고 듣고 냄새 맡으며 맛을 알고 촉감을 느끼는 것으로서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니 이 육체가 말로 세상을 알고 접하는 통로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석가모니부처님은 육체가 일어날 때 세상이 일어나며 육체가 일어나지 않을 때는 당연히 세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했다. 세상을 아는 것은 오로지 마음인 것이다. 그러니 나의 마음이 없으면 세상도 없는 법이다. 마음이 세상을 고통이라 여기기도 하고 행복하다고 여기기도 하는 것이다.

극심한 인생사 고난도 어느 순간이 지나면 그뎨 내가 왜 그랬을 까. 하고 자문하기도 한다. 모두가 다 마음이 만들어낸 환(幻)이라고 유식학파(唯識學派)에서 주장한다.

'김상희의 세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 02) 533-8877 / www.saju4000.com

#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2					9		
1		3				6		4
5		4		7		2		8
			5		7			
	8	7				4	6	
4								7
	7	1		5		8	4	
2			4		6			1
				9				

		6					4	
4	7			5			9	2
			3		1			
	3	4				1	6	
5				1				8
		2	7		4	9		
7								3
	9			8				1
		5	4		7	6		

수도쿠 정답

9	2	6	1	6	3	8	5	7	8
1	5	4	9	8	7	6	2	1	3
6	7	8	5	3	1	4	7	9	2
4	8	1	8	9	6	2	1	5	7
5	9	7	2	6	1	4	8	6	3
2	8	6	4	7	5	9	1	3	8
8	1	2	6	4	7	5	9	3	1
7	9	5	2	8	3	6	4	1	7
3	6	5	7	1	9	8	2	4	5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 장 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4319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423호

문제 제공= **보스**